

# 서양 체험을 통한 신여성의 자기 구성 방식\*

— 나혜석·박인덕·허정숙의 서양 여행기를 중심으로 —

우 미 영\*\*

1. 서론
2. 신여성의 제한된 외출과 기억으로서의 여행기
3. 구미여행의 증층성, 주체화/타자화의 길
  - 1) 두 개의 층위, 여성과 비서양인
  - 2) 구미여행에 작동하는 동일화의 원리
4. 민족·젠더·인종의 관점에서 본 신여성의 자기모순
  - 1) 젠더와 민족의 힘겨루기
  - 2) 시선의 동시성, 바라봄과 보여짐
5. 맺음말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3-074-AS0114).

\*\*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국문초록
------

근대는 지리학의 발달에 따라 여행이 어느 때보다 강조된 시기이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근대의 정신 속에서 강조된 여행의 개념은 여성의 여행과는 거리가 있다. 이는 여성과 불협화음으로 시작된 근대의 단면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불화의 관계 속에서도 여성은 남성적 근대의 틈새에서 자신의 방식에 입각하여 근대적인 길을 개척하였다. 이 글은 한국 근대 신여성의 여행기를 통해 이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근대 여성의 여행기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본격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신여성의 여행 조건 및 여행기의 특성에 대해 국내 여행기를 통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중점적으로 살핀 것은 나혜석, 박인덕 및 허정숙의 서양 여행기이다. 서양을 여행하고 체험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구성해나가는가 하는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 근대의 신여성이 서양을 여행하면서 부딪치는 것은 먼저 그들이 비서양인이요, 식민지인이요, 여성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그들의 존재 조건은 구미 여행의 성격을 규정짓는 중요한 층위로서 작용한다. 이로 인해 그들은 여행을 통해 주체가 되는 동시에 타자가 되는 중첩적인 의식을 갖게 된다. 이것은 민족·젠더·인종의 관점에서도 그들을 분열적이고 자기 모순적인 존재가 되게 한다. 이러한 의식의 분열과 자기 모순성은 근대의 담론 속에서 한국의 신여성이 차지하는 위치에서 비롯된 것임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이들의 서양 여행기는 서양과 동양, 남성과 여성이라는 근대의 강요된 위계적 사유가 구성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문제적인 텍스트이다. 이들 신여성 세 사람의 서양 체험을 통한 인식의 구성 과정과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근대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서양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도 성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신여성의 서양 여행, 동일화의 원리, 젠더와 민족, 변방의 변방(이중적 주변), 인종과 시선

## 1. 서론

최근 여행기가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처럼 여행기가 주목 받는 이유는 그것이 갖는 탈근대적 가치 때문이다. ‘근대’에 대한 성찰 또는 해체의 분위기에서 한국 근대 문학 연구는 실증적인 관점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작업은 근대의 자료더미에 직접 들어가 살펴봄으로써 서구 중심주의적 인식을 해체하고 우리의 근대를 새롭게 성찰하고자 하는 의지의 발현이다. 이것은 곧 재발견의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 중의 하나가 근대 수필이다. 그 가운데에서 여행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월등하다.<sup>1)</sup> 이처럼 근대의 여행기와 수필은 양적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시, 소설, 평론 등의 중심 장르에 밀려 근·현대 문학 연구에서 주변부로 밀려나 있었다. 문학 연구가 단순한 문학론을 넘어 복합적인 문화 현상까지 아우르고자 할 때 지금까지 보조 자료로 인식되어 온 수필 등을 더 이상 홀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처럼 여행기는 탈근대적 관점에 입각한 작업의 과정에서 발견된 것인 동시에 근대에 대한 성찰을 통해 근대를 극복하고자 하는 탈근대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자료로서 재발견되었다.

여행기<sup>2)</sup> 자체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킨 것은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다. 주지하듯 지식의 정치성에 주목한 이 저작에서 서양인들이 비

- 
- 1) 창작 시기를 개화기 이후 해방 전까지로 국한해 볼 때, 이 시기에 발간된 200여 종의 근대 잡지에 실린 여행기는 1,500여 편을 웃돈다. 동일한 시기에 발행된 신문에서도 1,000여 편 이상의 여행기가 발견된다. 이는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의 1차 기행 자료 조사(개화기~1945)에 근거한 것이다.
  - 2) 여행기는 19세기 말 프랑스에서 비교문학이 학문적으로 성립된 이후 비교문학 연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텍스트로 간주되어 지속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한국 문학사 또한 여행자 문학사라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축적된 해외 체험의 전통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성과와 의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충분히 인식되고 있었다. 이해순, 「여행자 문학론 試攷」, 『비교문학』 제24호 (한국비교문학회, 1999), pp.63~66.

유럽 세계에 관해 쓴 여행기는 “서양인들의 인식론과 담론의 왜곡된 형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가장 전형적인 텍스트”로 인식되었으며, 나아가 그것은 식민주의 담론으로 읽히게 되었다.<sup>3)</sup> 이후 서양인들에 의해 씌어진 여행기들은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사이드의 관점이 비판적으로 발전되면서 여행기는 주체의 자기정체성 형성과 타자 인식 사이의 역학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텍스트로 주목받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근대 지식인들의 해외 체험을 기록한 해외 여행기들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본고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신여성의 서양 여행기<sup>4)</sup>이다. 이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동양인, 식민지인 및 여성이라는 존재 조건을 간과할 수 없다. 이처럼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양한 것은 한국 근대의 신여성과 근대의 담론이 맺는 복잡성 때문이다. 그것은 결국 근대의 식민주의 담론에서 주변부의 주변이라는 동양 여성의 위치에서 기인한다. 본고에서는 여성의 서양 여행기에 나타난 서양 인식 및 체험 방식을 통해 서양과 남성 중심주의적 근대의 담론 속에서 여성이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 가는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는 곧 주변부로 인식된 영역에서 중심부로 인식된 영역의 표상 양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고찰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여성 여행기의 탄생 배경으로서의 여성의 외출을 살피고 여성 여행기의 전반적인 특성을 개괄할 것이다. 이를 통해 근대 담론 속에서의

3) 박지향, 「여행기에 나타난 식민주의 담론의 남성성과 여성성」, 『영국연구』 제4호(영국사학회, 2000), p.145.

4) 본고에서는 개화기 이후 1940년까지의 여성 여행기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1940년대 이후에는 제국주의와 지식인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그로 인해 텍스트 해석의 지평 또한 달리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1940년까지로 국한하였다. 이 중에서도 서양 여행기를 중점적인 대상으로 삼았다. 이 중 저작의 형태를 띤 나혜석, 박인덕의 여행기는 다음의 것을 텍스트로 삼았다.

이상경 편집 교열,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박인덕, 『세계일주기』, 조선출판사, 1941.(이 책은 1941년에 출판되었으나 여행 시기가 이 전이므로 연구 대상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

여성 및 여성 의식의 위치를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 2. 신여성의 제한된 외출과 기억으로서의 여행기

최남선의 「평양행」<sup>5)</sup>은 “너에게 감사한다”로 시작되는 기행문이다. “너”에게 쓰는 편지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 글에서 “너”는 바로 기차이다. 늘 마음으로만 그리던 평양을 볼 수 있게 해 준 기차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이처럼 기차와 철도가 있었기에 여행은 대중화될 수 있었다. 기차와 여행은 진화론에 토대를 둔 근대의 진취성을 표상한다. 이에 근대인들은 “말로만 배우고 귀로만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염량”하고자 하며 “지리 시간에 배운 것들을 講說과 圖繪로만 만족”하지 않고 “내 발로 친히 밟고 내 눈으로 친히” 볼 수 있는 세계 여행을 꿈꾸게 된다.<sup>6)</sup> 이처럼 근대인에게 여행은 세계로 뻗어나가려는 욕망의 적극적인 표현이자 실천으로서 강조되었다.<sup>7)</sup>

이처럼 여행이 권장되고 강조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여성에게 여행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조선시대의 전통적 삶이 여전히 지속되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여성에게 그것은 더욱 힘든 일이었다. 당시 양반가 여성들에게 외부와 차단된 가마를 타지 않고서 대낮에 길을 나서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들은 주로 밤을 이용하여 외출하였다. 물론 이 때에도 반드시 쓰개치마를 착용해야만 했다. 이러한 제한은 여성의 야간통행과 장옷 착용 금지가 발표된 1904년까지 계속되었다.<sup>8)</sup> 외출에 엄격한 통제를 받던 한국의 여성들을 바깥 세계로 불러 낸 합법적인 장치는 1886

5) N.S. 「평양행」, 『소년』 제2년 제10권(신문관, 1909.11), pp.133~152.

6) 「페소년세계주유시보」, 『소년』 제1년 제1권(신문관, 1908.11), pp.71~89.

7) 「수양과 여행」, 『청춘』 제9호, 신문관, 1917.7.

「산에 가거라」, 『청춘』 제10호, 신문관, 1917.9.

8) 『대한일보』, 1904.7.5.

년부터 시작된 여성 교육이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제도교육 안에 포함 된 것은 1908년이다. 교육기관들은 여성에게 정당한 외출의 기회를 제공 하였다. 특히 학교에서 실시하는 소풍 또는 수학여행을 통해 그들은 처음으로 단순한 외출의 즐거움을 넘어 여행의 호사를 누리게 된다. 1899년 이화학당 학생들의 첫 봄 소풍은 “500년 내 처음 있는 여학도의 화류”<sup>9)</sup>로 기사화될 정도로 경이로운 일이었다. 여성들의 여행기는 그들의 외출 기회가 확대되면서 씌어지기 시작한다.

終日토록 즐기다가 夕陽에 도라오니 그 아기가 자기하고 滋味스럽고 깃분 말을 잊지 다 하겠습닛가.

아 - 우리 동무들이여! 우리가 一年에 두 番씩 가는 이 遠足이 안이면 家庭이나 學校에서는 맞볼 수 업는 이런 愉快한 甞김을 잊지 맞볼 수 잇겠습닛가 참 遠足이란 조흔 것이외다 나는 遠足이 우리 학생들의 心身을 健康케하고 聞見도 넓히는 의미로 보아 업지 못할 것임을 謹히 謹히 깨달엇습니다.

틈만 잇스면 가 봅시다 산으로 바다로.<sup>10)</sup>

예나 지금이나 원족 즉 소풍은 집과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이다. 위의 글은 여성에게 이러한 기회가 흔치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후에도 여성에게 여행은 쉽게 주어지지 않았음을 강경애의 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937년에 쓴 여행기에서 그녀는 “언제나 여행하기 까지 한가로움을 갖지 못한 나는 이때까지 여행한 일이 극히 적다. 몇 번 고향을 다녀온 것뿐외에 전무하다고 해도 옳을 게다.”라고 적고 있다.<sup>11)</sup> 이것은 강경애만의 특수한 현실이라기보다는 이 시대 여성 일반의 현실을 대변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의 경우 여행이 힘들었던 것은 가난

9) 『그리스도인 회보』, 1899.5.10.

개화기로부터 1910년까지의 여성의 외출에 관한 기록과 자료는 최숙경, 『개화기 여성 생활 문화의 변동과 전개』, 『여성학논집』 제16권(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1999)를 참고하였다.

10) 정애, 「三幕寺의 가을」, 『신여성』 제1권 제2호(개벽사, 1923.11), p.45.

11) 강경애, 「기억에 남은 몽금포」, 『여성』 제2권 제8호(조선일보사, 1937.8), p.78.

한 생활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여성의 여행은 이러한 경제적 사정을 초월한다. 근대 여성 교육이 그들에게 학교로의 외출의 길을 열어주긴 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외출이었다. 여성에게 근대의 교육은 두 개의 얼굴을 들이밀었다. 한편으로는 자의식을 싹트게 함으로써 그들의 주체적 의식을 자극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현모양처'가 될 것을 강요했다.<sup>12)</sup> 따라서 이들의 외출은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외출이었다. 여행에 대한 제한이 절대적인 현실에서 신여성의 여행은 주로 결혼과 학교라는 틀에 국한된다. 그 결과 신여성들의 국내 여행기는 주로 여학생들의 원족기, 수학여행기 및 신혼여행기 등이며 그 외에는 여성 문인 작가들의 여행기가 조금 있을 뿐이다.

근대의 여행은 단순한 호기심의 수준을 넘어 자국에 대한 영토 인식 및 영토 확장의 욕망이 깔린 제국주의적 지리의 관점에 토대한 것이다.<sup>13)</sup>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근대의 여행과 신여성의 여행은 여성이 처한 물리적 제약 속에서 약간의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또 그들의 여행을 기록한 여행기는 주로 기획된 여행기로서의 특성이 강하다. 『신여성』 1923년 11월호에는 「淸秋의 一日—각 학교 여행기」라는 제목 아래 세 편의 여행기가 실려 있다.<sup>14)</sup> 남성들의 원족기 또는 수학여행기는 1920년을 전후해

12) 박정애, 「초기 '신여성'의 사회진출과 여성교육—1910~1920년대 초반 여자 일본유학생을 중심으로」, 『여성과 사회』 제11호(한국여성연구회, 2000), pp.48~51.

13) 이 시기의 여행이 단순한 관광의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의미가 내포된 것임은 “土人 모양으로 관광단 노릇을 하지 말고 진정한 의미의 시찰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조선인 일본 관광단에 대한 유학생의 비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특히 남의 나라를 여행할 때 여행자가 대상 국가를 적극적으로 응시하고 관찰하지 않으면 “발달한 문명을 보고 공포증만 얻고 돌아오며, 또 우리의 추태만 남들에게 광고하는 결과가”(S생, 「관광단을 평론함」, 『학지광』 22호, 학지광사, 1921.6)되어 오히려 “인물 표본으로 다른 나라 사람의 구경거리가”(취몽생, 『隨感隨錄』, 『학지광』 22호, 학지광사, 1921.6)될 수 있다는 지적을 통해 거기에 내포된 정치 역학적인 긴장을 읽을 수 있다.

14) 여기에는 정애의 앞의 글 외에 진묘순의 「처음 본 개성」과 연옥의 「북악산의 하로」 등의 2편이 더 실려 있다.

서 발견되기 시작한다.<sup>15)</sup> 또 1920년대 초반에는 일본에 의해 정책적으로 일본 관광이 실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산수 유람의 사회 풍조까지 만연하던 시대였다.<sup>16)</sup>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1920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이미 여행 또는 관광이 적지 않게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신여성』에 실린 여학생들의 여행기는 시기적으로 뒤늦은 감이 있다. 이러한 뒤늦은 출발은 여성잡지의 발간 시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신문과 잡지들이 간행되는데 『신여자』·『신가정』·『신여성』·『여성』·『부녀세계』·『현대부인』·『만국부인』 등의 여성 관련 잡지들도 이 시기부터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신여성』에 실린 여학생들의 글은 여성 잡지의 기획에 의해 발굴된 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여학생들의 원숙이 있었고, 이로부터 그들은 일탈감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원숙기의 형태로 탄생하는 데에는 잡지사의 기획이라는 촉매가 필요했다.<sup>17)</sup> 다양한 잡지들이 발간되면서 남성들의 여행기 또한 기획과 청탁에 의해 썩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근대 여행기의 초기 형태를 보면 그 차이점이 입체화된다. 즉, 『소년』 등에 실린 기행문들이 말해 주듯 남성들의 여행기는 ‘찾아낸’ 테마로서의 성격이 짙다.<sup>18)</sup> 이에 비해 여성 여행기의 초기 형태인 여학생들의 원숙기는 기획에

- 
- 15) 김윤경의 「仁川遠足記」·애유생의 「북성기」, 『청춘』 제15호, 신문관, 1918.9. 박춘파, 「淸秋의 逍遙山」, 『개벽』 제5호, 개벽사, 1920.11. 茄子峯人, 「淸秋의 旅, 江華行」·李丙巖, 「淸秋의 旅, 開城行」, 『개벽』 제17호, 개벽사, 1921.11. 등
- 16) “近日 우리 사회에 名山水를 유람하는 풍조가 유행하게 되어 금강산을 탐승하는 人士도 많으며 백두산을 탐험하는 人士도 있음은 自然美에 대하여 일반 사회의 취미가 향상된 表證이니. 어찌 可喜할 현상이 아니라.” 문일평, 「北漢의 一日」, 『개벽』 제16호, 개벽사, 1921.10.
- 17) 『신가정』 제6권(신동아사, 1936. 5), pp.163~169에는 「영생여고생작품」이라는 제목 아래 여학생들의 작품을 실고 있다. 여기에도 이봉순의 「경주여행기」와 김옥선의 「금강산탐승기」라는 여행기 두 편이 있다. 후자는 수학여행기이다.
- 18) 이 또한 순수하게 찾아진 테마로 볼 수 있을 지는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최남선은 일본 대학의 지리과에 적을 둔 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그의 지리 인



의해 ‘찾아진’ 테마이다.

이러한 특성에 의해 그들이 재구하는 여행은 기억에 토대하고 있다. 그들의 여행기는 기억으로서의 여행기인 셈이다. “발서 신혼이라는 그러그 러한 때가 저 먼 옛날 같이 되어 버린 이 때에 새삼스럽게 달콤하고 아기 짜깃한 신혼여행기를 쓰라는 명령을 받고 펜을 들게 되[에] 공연히 우 습만 남니다.”로 시작되는 백신애의 신혼여행기를 비롯하여 허영숙은 10년 전, 최승희는 만 3년 전 그리고 장덕조는 만 2년 전의 결혼 당시를 회상하며 여행기를 쓴다.<sup>19)</sup> 여성 작가들의 여행도 이러한 성격이 강하다.<sup>20)</sup> 여행이 어디 소풍, 수학여행 및 신혼여행뿐인가. 여행의 참맛은 유랑, 방랑 또는 탐험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로운 여행을 꿈꾸고 실천하기에는 여성에게 가해진 제약이 너무도 많았다. 따라서 여성들은 실제 여행을 하고서도 그에 대한 의식을 가지지 못하거나, 청탁을 받고서야 기억을 통해 여행의 의미를 재구성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흔치 않은 여행의 경험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여행은 추억이 되고, 여행기는 낭만화, 이상화의 경향을 띠게 된다.

이러한 여성의 여행기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자의식이 표출되는 것은 유학생들의 글이다. 근대의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현모양처의 삶을 강조는 국내에서는 그들의 뜻을 확장시켜 나갈 수가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해외 유학이었다. 따라서 이 시대 여자 유학생들은 자의식이 가장 강한 여성 집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본격적인 해외 여행을 경험한 나혜석, 박인덕, 허정숙은 이를 대표하는 여성들이라고 할 수 있다.

---

식이 어떻게 일본의 근대 교육을 통해 매개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 백신애의 「슈-크립」, 허영숙의 「눈물의 소향주」, 최승희의 「꿈의 동경」, 장덕조의 「그 밤의 달빛」, 박길래의 「낙랑의 고분」 등은 「신록의 신혼여행」이라는 제목 아래 『삼천리』 1935년 4월호에 실렸다.

20) 『조광』 제22호(조선일보사, 1937.8), pp.59~62에 실린 백신애의 「동화사」의 탄생 조건도 동일하다.

### 3. 구미 여행의 중층성, 주체화/타자화의 길

#### 1) 두 개의 층위, 여성과 비서양인

나혜석, 허정숙 및 박인덕이 구미 또는 세계를 일주한 시기는 주로 1920년대 후반이다.<sup>21)</sup> 이들이 서양을 여행하면서 공통적으로 눈여겨 본 것은 서양 여성들의 삶이다. 조선 여성의 삶에 대비되는 그들의 삶을 통해 이들은 여성으로서의 주체성을 자각하고 나아가 조선 여성이 살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된다. 여성이라는 층위에서 볼 때 이들의 구미여행은 스스로를 주체로 세워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자각한 주체화의 도정이었다.

그 외에 나는 여성인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지금까지는 중성같았던 것이). 그리고 여성은 위대한 것이요, 행복된 자인 것을 깨달았다. 모든 물질이 이 여성의 지배하에 있는 것을 보았고 알았다. 그리하여 나는 큰 것이 존귀한 동시에 작은 것이 값있는 것으로 보고 싶고 나쁜 아니라 이것을 모든 조선 사람이 알았으면 싶다.<sup>22)</sup>

나혜석은 구미 여행 이후 처음으로 자신이 여성임을 인정한다. 그녀에게 구미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맛보게 해 준 곳”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의 가정에서는 어린 아이라도 자기 것은 제가 알아서 하고 자기의 주의 주장을 당당하게 내세우는 합리적인 공간이었으며, 감성과 이지가 절충되면서도 창의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여기에서 여성, 가족의 일원 및 예술가로서 조화를 이루는 삶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유학간

21) 나혜석은 1927년 6월부터 1929년 2월까지 1년 반 동안 유럽과 미국을 여행하였다. 허정숙은 1926년 5월 아버지 허헌을 따라 세계 일주 여행 중에 미국에 남아 1927년 말까지 유학 생활을 하였다. 또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박인덕의 세계 여행 시기는 1926년 8월부터 1931년 6월에 해당한다.

22) 나혜석, 앞의 책, p.318.

지 2년이 채 못 되어 북미유학생회 기관지에 발표한 글에서 박인덕은 여성의 노예적 삶의 원인을 경제력의 부재에서 찾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교육을 통해 여성들이 직업을 갖는 수밖에 없으므로 한국에도 여자실업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sup>23)</sup> 이처럼 이들의 여행은 자신이 여성임을 인정하고 여성으로서의 주체적인 삶에 대해 고민하도록 자극 받은 여행이었다.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의 여행은 스스로를 더욱더 주체적인 여성으로 단련시킨 길이었다. 한편 비서양과 서양의 층위에서 보면 그들은 서양에의 적극적인 지향을 드러낸다. 나혜석의 경우 「자화상」이라는 그림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구미 여행 이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작품에서 그녀는 자신을 서양 여자처럼 표현하였다. 「자화상」의 얼굴 모습은 마치 서양인처럼 입체적으로 처리되고 있다.<sup>24)</sup> 오리엔탈리즘은 부단히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동양을 타자로 만들어낸 서양의 자기주체구성방식의 결과이다. 비서양 여성이 서양 여행을 통해 자신을 주체로 구성하는 방식은 이와 반대이다. 즉, 그들은 부단히 서양과의 동일성을 지향하면서 스스로를 타자로 만들어간다. 전자가 타자 만들기라면 후자는 타자되기이다. 이들의 여행에서 타자화의 모습을 보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양상은 나혜석과 박인덕의 여행기 곳곳에서 쉽게 발견된다. 이에 대해서는 그들의 여행에 작동하는 원리를 다룬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허정숙의 구미여행기는 4쪽에 달하는 짧은 분량이다. 짧은 여행기에서도 그녀는 미국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녀 또한 미국의 여성들의 삶에 깊은 관심을 보인다.

23) 박인덕, 「조선여자와 직업문제」, 『우라키』 제3호(북미조선유학생회, 1928.4), pp.46~49.

24) 김현화, 「한국 근대 여성 화가들의 서구 미술의 수용과 재해석에 관한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제38호(숙명여대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1999), p.131.

이 나라의 婦人에 對하여는 나는 처음 그들을 對할 때에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不足한 점이 없는 完全한 人形(能히 動할 수 있는)인 그 점 이외다. 일본의 女子가 人形 갓다고 하는 말은 전에 누구에게 들었든 바 美洲의 女子를 대할 때는 正말로 이것이 人形이다 하는 感이 들었습니다. 日本의 人形은 흔들어도 울 줄 모르는 人形이지만은 美洲의 人形은 男子에게는 任意自在한 人形이면서도 亦是 感覺이 있는 울 줄도 알고 動할 수도 있는 人形이외다. 彫刻家의 만드는 人形은 生命이 없는 人形이지만은 資本主義 文明은 生命 있는 人形을 製造하는 힘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러케 아름답고 생명 있는 人形, 돈이라면 얻는 삼키는 人形은 자본주의 국가인 이 나라가 아니면 볼 수 없을 것이외다.

또 이 人形의 特色은 돈! 돈을 잘 아는 것입니다. 이 돈의 나라는 人間인 女子를 돈(錢) 잘 아는 人形으로 製造化하는 工場이외다.<sup>25)</sup>

위의 글을 보면 허정숙은 미국의 여성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다. 요지는 미국의 여자들은 상당히 아름다운데 그것은 결국 돈으로 만든 아름다움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권을 말하지만 “女流 正客들은 각음 議會에서 男子들의 戲弄거리가 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 그녀가 보기에 “이 나라의 女權은 人形에 비위 맞초는 一手段에 不過한 것일 뿐이”라고 쓰고 있다. 그녀는 미국에서 돈의 위력과 폐해를 보면서 자본주의 제도에 대한 증오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미국 여성에 대한 비판 또한 자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없는 여성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볼 때 나혜석과 박인덕의 서구 여행에는 타자화와 주체화의 과정이 뒤섞여 있다. 즉, 그들의 여행은 서구와의 관점에서 본다면 타자되기의 길이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체적인 삶에 대한 자각의 길이다. 이것은 이 시기 여성의 중층성 즉, 서양인에 대해서는 비서양인이며 남성에 대해서는 여성이라는 두 개의 층위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허정숙의 경우는 비서양인으로서의 타자화의 양상은 보이지 않는다. 그녀의 사회주의

25) 허정숙, 「울 줄 아는 人形의 女子國—北米印像記—」, 『별건곤』 제9호(개벽사, 1927.12), p.76.

적 입장이 동서양의 지역적 구분을 초월하게끔 작용한 결과이다. 여성의 주체적 입장이 미국 여행을 통해 더욱 확고해진 것은 그녀 또한 공통된다. 그녀는 1년 반 정도 미국에 머물면서 여성해방이론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인 학습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귀국하자마자 이를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1928년 『동아일보』에 「부인운동과 부인문제 연구: 조선 여성 지위는 특수」라는 글을 필두로 한 그녀의 이후 활동들<sup>26)</sup>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 2) 구미 여행에 작동하는 동일화의 원리

허정숙에게서는 그녀의 여행지인 미국에 대한 동경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그녀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이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유학을 떠날 즈음에도 “洋行의 것뿐이나 外國遊覽의 즐거움이라는 거슨 없”었다고 구미여행기에 적고 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사회주의자라는 데에도 있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먼저 여행의 동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녀의 미국행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남편을 감옥에 둔 상태에서 또 다른 남자와 동거하게 되면서 세상 여론만이 아니라 조선 공산당 내에서도 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이처럼 따가운 시선과 세상 여론에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그녀가 선택한 것이 미국 유학이었다.<sup>27)</sup> 그녀의 표현에 따르면 “돌에 마른 듯한 묵어운 머리와 收拾할 수 없는 混濁한 精神”으로 오른 여정이었다.

그러나 나혜석과 박인덕은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이미 서구에 경도됨이 컸다. 허정숙의 말처럼 “北米洲는 學究輩와 成金家들에게 만흔 憧憬을 던져주는 땅”이었다. 즉 서구에의 동경은 비단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었다. 일찍이 미국 또는 독일 등으로 길을 떠났던 박승철<sup>28)</sup>, 노정

26) 서형실, 「허정숙, 근우회에서 독립동맹투쟁으로」, 『역사비평』 제6권(역사비평사, 1992), pp.280~287.

27) 위의 글, p.280.

28) 박승철, 「獨逸地方의 二週間」, 『개벽』 제26호, 개벽사, 1922.8.

일<sup>29)</sup> 등의 글에서도 마찬가지로 동경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지식인들에게 서구는 신사상의 근원지로서 삶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이상(理想)의 공간이었다. 개화를 전후하여 국제 정세가 재편되면서 한국인의 이상적인 공간이 중국에서 일본 및 서양으로 전이된 것이다. 그들이 서구 중심의 국제 관계를 인지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은 교육이었다. 근대적 교육 사업의 주체인 서구에서 온 선교사들의 교육 내용은 당연히 그들의 근대 사상이었다. 또 그들의 주선으로 유학을 하고 돌아온 자들이 새로운 교육의 주체로 서구 사상을 전도하고 재생산하는 역할을 했다.<sup>30)</sup> 『소년』지에 실린 “뿌리텐國 쓰린위치 天象臺를 通過한 經線을 本初로 하여 그 以東 一百八十度를 東經이라하고 그 以西 一百八十度를 西經이라하고”<sup>31)</sup>라는 글은 지식을 통해 서양 중심주의가 전파되는 시발점의 현상이다. 이러한 당대 담론의 영향 속에서 이 시기 지식인들은 서양이라는, 세계의 중심을 꿈꾸게 된다.

여행을 소재로 한 서사에서는 시간적 추이에 따른 주체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나혜석과 박인덕의 여행기를 시간적 추이에 따라 살펴보면 그들의 여행에서는 초시간적인 의식의 수렴점을 발견하게 된다. 즉, 여행 이전—여행 진행시기—여행 이후로 나누어볼 때, 그들의 지향점은 서양화라는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된다. 그들은 여행 이전에 이미 서구에 대한 동경과 선입견을 안고 떠난다. 여행은 그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체험과 학습을 통해 그러한 자신의 생각을 더욱 공고하게 다지는

29) 노정일, 「세계일주 山넘고 물건너(2)」, 『개벽』 제20호, 개벽사, 1922.2.

30) 최초의 여성 교육 기관인 이화학당의 설립 배경이 그를 말해준다. 또 이화학당 출신의 황메리는 “선교사를 따라 미국에 건너가 그 나라 문화를 폐부에 가득 들이 마시고 돌아온 뒤” 숙명학교와 진명학교를 창설하는 등 여성 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갔다. 『광무·경희시대의 신여성총관』, 『삼천리』 제15호, 삼천리사, 1931.5.

31) 「鳳吉伊地理工夫—北極·南極이란 웃더한 곳인가(上)」, 『소년』 제2년 제3권, 신문관, 1909.3.

계기가 된다. 여행 기간 동안 자신들이 출발 전에 가졌던 생각이 편견임을 알고 수정하는 예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욱 확고해진 서양 우월적인 사고는 귀국 후에도 그녀들에게 삶의 모델로 작용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시간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이들의 사유가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되고 있으며, 그 지점이 그들의 시간을 일관되게 지배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구미 여행이 동일화의 원리에 지배되고 있다고 보았다. 동일화의 원리만이 작용하는 곳에서는 이질적인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 동일화의 원리란 이질적인 것마저 자기중심적으로 포섭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들에게 서양과 다른 조선의 현실은 절대 그 자체로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다른 제2, 제3의 모색이란 있을 수 없다. 두 공간의 차별성이 그녀들을 괴롭힐 뿐이다. 이처럼 여행을 통해 형성된 그들의 서양 중심적 세계관은 그들이 대상을 규정하는 유일한 잣대로서 작용하며 그것은 기억 속에서 더욱더 이상화되고 낭만화된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그녀들의 여행이 유학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의 여행은 단순한 관광도 유랑도 아니었다. 박인덕은 덴마크에 머물 때 엘시노 국제고등학교라는 곳에서 2주간 날마다 수업을 들으면서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한다. 당시 조선과 비슷한 농업국인 덴마크의 실용적인 고등 교육은 그녀에게 큰 감흥을 주었으며 이것은 귀국 후 그녀의 행적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유학의 형식은 나혜석과 허정숙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이처럼 이들의 여행은 학습으로서의 여행이었다. 나혜석의 구미여행기 중 상당 부분이 백과사전적인 정리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이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준다.<sup>32)</sup> 이는 또 서구 여행의 내용과 결과를 전달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발생한 계몽적 서술태도이기도 하다. 여행 이전에 가졌던 서구에 대한 동경은 학습을 통해 더욱

32) 「구미여행기」 11편 중 3편을 제외한 8편의 기술 방식이 이러하다.

체계적으로 그들의 내면에 각인된다. 이들이 학습한 것이 여행 대상국인 서양의 사상과 문화였음은 너무도 자명하다. 그에 대해 일방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열의에 가득 차 있는 그들로서는 대상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가지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비판적 거리의 부재는 대상에 대한 무사(無邪)한 접근을 방해한다. 그 결과 여기에는 대상을 왜곡하고 신비화, 이상화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자치적인 프랑스의 가정생활에 경탄하면서 “여덟 살 된 사내아이가 살림살이를 다 하다시피”<sup>33)</sup>한다는 표현이나, 사교성이 없어 동족들에게 호의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는 파리의 예비 철학박사를 보면서 “아는 것이 오죽 많겠나, 각국 방언(方語)로부터 각 방면 과학이 머리 속에 꼭 차서 있을 것이다”<sup>34)</sup>라는 나혜석의 표현은 지나친 비약이다. 이러한 예들은 서구에 대한 신비화, 이상화의 경향을 그대로 보여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은 그들에게 사람다운 삶을 깨닫게 해 준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문제는 여행 이후이다. 삶에 대한 자기 주도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자각한 그들은 귀국 후에 그러한 삶을 현실화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그들의 변화된 의식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의 서구 체험은 더욱 낭만화되고 내면에서 더욱더 강한 응집력을 가지면서 공고화된다. 그녀들이 균열을 일으키는 지점은 바로 이러한 불일치 속에서 이다. 나혜석은 마치 이러한 앞날을 예감한 듯 1년 반 동안의 여행을 마치고 부산을 통해 귀국하면서 “이로부터 우리의 전도(前途)는 어떻게 전개하[되]려는지” 하는 강한 불안감을 드러낸다. 박인덕은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진 만 55개월간의 여행 이후 1931년 귀국하였다. 이후 몇 년 있다가 그녀는 다시 여행길에 오른다. 세 번째 여행길을 떠나는 그녀의 마음은 그전과는 사뭇 다르다.

33) 나혜석, 앞의 책, p.296.

34) 위의 책, p.310.



사랑하는 京城 저 속에는 얼마나 반가운 사람과 咀呪할 사람들이 있는가? 거기서 어머니가 계시고 친구가 있고 많은 同志가 있다. 그러나 나는 朝鮮같이 쓸쓸하고 딱딱하고 滋味없는 곳은 別로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米國서 처음 朝鮮에 올 때에는 많은 抱負를 가지고 이 땅과 이 하늘에 많은 愛着과 따스한 感興을 가지고 첫 자욱을 京城에 印쳤든 것이다.

그러나 無情하다. 京城이여 너는 나에게 그리 즐거움을 주지 못하였고 내 抱負를 알아주지 못하였고 내 부름을 들어주지 않았다. 煩悶과 焦燥와 彷徨 나는 이제 이 땅을 떠나는 하나의 失鄉者라고 할까? 太平洋아 로산젤스여 쉬 카고여 미산간湖여! 나는 다시금 너의 따뜻한 날개를 찾아 이 땅을 떠나노라.<sup>35)</sup>

세계 여행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던 이전의 여행들과 달리 이번 여행은 패배자처럼 출발하고 있다. 그녀는 귀국 후 여권 존중 및 부인 해방을 주장하며 잡지에의 기고 등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sup>36)</sup>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편과의 이혼 등으로 갈등하고 시달렸다.<sup>37)</sup> 귀국하면서 가진 포부를 이 땅에서 펴지 못하고 그녀는 결국 “실향자”가 되어 다시 길을 떠난다.

박인덕은 이처럼 새로운 희망을 찾아 길을 나서지만, 나혜석은 그렇지 못했다. 그녀 또한 다시 한번 외국으로 나가고자 하나 그것은 끝내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서구 체험은 이후의 삶을 질곡으로 몰아넣는 계기가 된다.

조선와서의 나의 생활은 어떠하였나. 꺾었던 머리를 부리나케 기르고 깡똥한(아랫도리가 드러날 정도로 짧은) 양복을 벗고 긴 치마를 입었다. 쌀밥을

35) 박인덕, 「태평양 삼만리 가는 길」, 『신인문학』 제3권 제2호(청조사, 1936.3), pp.70~71.

36) 「조선 여류 10거물 열전(1), 박인덕, 황에시덕 양씨」, 『삼천리』 제3권 제11호(삼천리사, 1931. 11), pp.37~38.

37) 「조선의 노라로 인형의 집을 나온 박인덕씨」, 『삼천리』 제11호(삼천리사, 1933. 1), pp.73~74.

먹으니 숨이 가쁘고 우럭우럭 취하였다. 잠자리는 배기고 늘어선 것은 보기 싫었다. 부엌에 들어가 반찬을 만들고 온돌방에 앉아 바느질을 하게 되었다.

시가 친척들은 의리를 말하고 시어머니는 효도를 말하며, 시누이는 돈 모으라고 야단이다. 아, 내 귀에는 아이들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소리가 이상스럽게 들릴 만치 모든 지난 일은 기억이 아니 나고 지금 당한 일은 귀에 들리지 아니하며 아직 깨지 아니한 꿈속에 사는 것이었고, 그 꿈속에서 깨어보려고 허덕이는 것은 나 외에 아무도 알 사람이 없었다.<sup>38)</sup>

그녀는 귀국 후 조선에 들어선 느낌을 “외국에” 온 듯 하다고 표현한다. 그것은 서구화된 그녀의 의식 속에 비친 조선을 말한 것이며 또 조선 현실에 대한 괴리감의 표현이다. 구미 여행 1년 반 동안 느꼈던 충만한 의식이 주는 기쁨과 자유로움을 안으로 숨긴 채 그녀는 의식주의 모든 생활을 조선식으로 바꾸어야 했다. 여행 기간이 얼마나 길었다고 “쌀밥을 먹으니 숨이 가쁘고 우럭우럭 취”할 정도일까 마는, 이것은 그녀가 느끼는 괴리감의 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내 머리로는 딴 생각을 하면서 몸으로는 그들에게 싸이게 하느라고 애를 무한히 쓰게 되고 남 보기에는 얼빠진 사람같이 된다”<sup>39)</sup>는 식의 분열은 여행이 가져다 준 결과이다. 이로 인해 박인덕은 실향자가 되었다면 나혜석은 이 땅의 이방인이 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통해 볼 때 나혜석과 박인덕의 사유는 대부분 서구 중심주의로 귀결된다. 여행을 전후한 시간적 흐름을 통해 볼 때에도 대상과의 접촉을 통한 새로운 사유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유를 더욱 강화하고 이후에도 이 지점으로 모든 것을 수렴하려는 양상을 보였다. 이것은 곧 서구라는 타자에 대한 적극적인 동화의 의지를 드러내는 행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들의 구미 여행에는 동일화의 원리가 작동한다고 보았으며 이것은 비서양인으로서 서양인에게 대해 스스로를 타자

38) 나혜석, 앞의 책, p.319.

39) 위의 책, p.322.

로 만들어가는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들이다.

## 4. 민족·젠더·인종의 관점에서 본 신여성의 자기모순

### 1) 젠더와 민족의 힘겨루기

지금까지 한국의 신여성이 서양—유럽 또는 미국—을 만났을 때 그 만남의 성격을 ‘비서양과 ‘여성’의 층위에서 살펴보았다. 한편 낯선 것들을 통해 익숙한 것들을 재인식하고 타자를 통해 자기를 재발견하는 것은 여로(旅路)의 일반적인 속성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서양 여행을 통한 여성의 자기 발견 방식이 민족 및 젠더의 관점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대한유학생학보』 3호에는 江見水蔭이라는 일본인이 쓴 「울산행」<sup>40)</sup>이라는 글이 한 편 실려 있다. 이 글은 일본의 잡지 『태양』에 실린 것을 유학생이 보고 옮겨 실은 것이다. 일본인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그는 분노와 모욕감을 느낀다. 이러한 느낌은 이광수에 이르면 수치심과 자기 비하로 나타난다.<sup>41)</sup> 이것은 일본과 우리 민족의 차별화를 인식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민족의식의 원초적인 감정이다. 식민지에서 그것은 모욕감과 분노 및 수치심의 형태로 먼저 체험된다. 여성 여행가들도 문명화된 서구를 체험하면서 그들과 비교되는 우리의 처지를 발견한다.

40) 江見水蔭 저 영빈생 역, 「울산행」, 『대한유학생회학보』 제3호, 1907.5.25. 일본인의 조선여행기를 우연히 읽게 된 유학생인 역자는 “一字反句도 우리 나라를 기롱하고 모욕하는 뜻을 머금지 않은 곳이 없”다고 분노하며서 우리를 바라보는 외국인인 시선을 알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글을 적노라고 옮긴 이유를 후기에서 밝히고 있다.

41) 「海參威로서 第一信(其一)」, 『청춘』 제6호(신문관, 1915.3), pp.879~881.

桑港에서 시카고시를 向해 올 때 驛場마다 女驛員들이 簡單한 行장을 차리고 일하는 것을 본 일이 있다. 어데던지 事業이란 名稱이 잇는 곳에는 男女가 同權을 가지고 일을 한다. 或者는 職業 女子에게 對하여 家庭을 等間視한다고 酷評을 한다. 그러나 歐美 家庭 制度가 簡略히 된 고로 女子가 家庭에서 볼 일을 다 보고 나서도 能히 다른 事業을 行하게 組織이 되었다. 우리 家庭 같에서야 일은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家庭 事業의 해매이기에 敢히 다른 일은 念頭에도 못 두게 되고 더구나 雪上加霜으로 어린 아희가 하나들 생기게 되면 어머니의 손은 永永 家庭 안에 꼭 잠기고 만다.<sup>42)</sup>

박인덕이 북미조선유학생회에서 발간한 잡지에 실은 글의 일부이다. 웨슬리안 대학에 재학하면서 경험한 미국 생활을 토대로 조선의 여성에게 왜 경제력이 없는지를 분석한 글이다. 여기에서 그녀는 가정에 얽매여 자유로울 수 없는 조선 여성의 생활 조건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이처럼 박인덕의 글은 조선 여성과 미국 여성의 삶의 조건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여자 역무원들이 일하는 모습은 미국에 처음 도착한 그녀에게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로 『세계일주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어조는 담담하다. 여기에서 영빈생이나 이광수 등의 남성들에게서 보이는 격정을 읽어 내기란 쉽지 않다.

이를 통해 보듯이 이들에게서는 분노나 모욕감 등을 걱정적으로 드러내는 양상은 발견하기 어렵다. 이와 달리 그것은 잔잔하면서도 가슴 속 깊은 연민의 형태를 띠고 드러난다. 나혜석은 프랑스의 파리와 유럽의 예술을, 박인덕은 영국을 경탄하고 찬탄한다. 이들과 대비되는 자국은 그들에게 언제나 불쌍함의 대상이다. 나혜석은 이국에서 떠오르는 고국의 풍경 때문에 “소리없는 한숨을 목구멍”으로 삼키거나, 여행의 행복감에 감사드릴 때 “삶에 허덕이는” 불쌍한 “고국 동포”를 떠올린다.<sup>43)</sup> 이러한 표현들

42) 박인덕, 「조선여자와 직업문제」, p.47.

43) 나혜석, 앞의 책, p.350, 531.

박인덕도 “자기가 낳은 자식이 눈이 멀었다든가 귀가 먹었다든가 또는 한편 다리가 병신이 되어서 남에게 뒤떨러진 불구의 자식이란 말을 들을 때 불쌍하

을 통해 여행을 통한 민족적 처지의 자각이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민은 여행기 전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으며 잠깐 언급될 뿐이다.

이처럼 연민이 단발적으로 표현되는 것, 이들의 여행기에서 민족에 대한 표현이나 여행 대상국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찾아보기 힘든 것 등에 대한 이유는 하나로 모아진다. 이유는 여성 여행가들이 유럽과 미국 등지를 여행하면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바로 젠더로서의 자기 발견이라는 데 있다. 그들은 여행을 통해 조선의 식민지적 현실을 절감하기에 앞서 조선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먼저 깨닫게 된다. 이는 조선의 가부장적 현실이 조선의 식민 상황보다 더 우위에서 여성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그들에겐 제국에 대한 증오보다 조선 여성의 현실에 대한 증오가 더 크다. 나혜석이 파리 체류 당시를 “여성이요 학생이요 처녀로서의” 기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곳으로 회상하듯 그녀에게 서양은 인간이자 여성으로서의 삶이 실현되는 공간이다. 이에 비해 조선은 “부억에 들어가 반찬을 만들고 온돌방에 앉아 바느질을” 해야 하는 엽대인 삶의 공간이다. 특히 구미 여성은 “창조적이요 예술적”일 뿐만 아니라 “인격으로나 두뇌로나 기술로나 학술상 조금도 남자의 그것보다 결핍이 있지 아니하여 당당한 사람 지위에 있”다.<sup>44)</sup> 그렇기에 그녀에게 서양은 모방의 대상이요 도달해야 할 목표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과 동일해지고자 하는 욕망이 자민족에 대한 연민보다 우세하게 표출되는 것은 당연하다.

서양에 대한 동일화 욕망의 기저에는 여성으로서의 주체적 삶을 살고자

---

게! 가엽게! 애처롭게 생각하듯이 내가 조선의 땅을 밟으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가엾은 조선아! 애처로운 내 땅아!」 하고 부르짖었습니다.”라면서 고국에 대한 연민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였다. 「(만국부인)육년만의 나의 반도, 아메리카로부터 도라와서 여장을 풀면서 옛 형제에게」, 『삼천리』 제3권 제11호(삼천리사, 1931.11), p.89.

44) 위의 책, p.440.

하는 강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 여성의 인간적 삶은 서양적 삶으로의 변화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 차원의 의식은 젠더적 의식에 의해 은폐되거나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 다음은 서양화를 대표하는 문명인의 시선 속에서 민족의 구분이 무화되는 예이다.

그러나 요코하마(橫濱)에 도착되는 때부터 가옥은 나뭇간 같고, 길은 시구령(시궁창) 같고 사람들의 얼굴은 노랑고 등은 새우등 같이 꼬부라져 있다. 조선 오니 길에 먼지가 뒤집어 씌우는 것이 자못 불쾌하였고 송이버섯 같은 납작한 집 속에서 울려 나오는 다듬이 소리는 처량하였고 흰 옷을 입고 시름 없이 걸어가는 사람은 불쌍하였다.

이와 같이 활짝 피었던 꽃이 바람에 떨어지듯 푸근하고 늘씬하던 기분은 전후 좌우로 바싹바싹 오그라들기를 시작하였다.<sup>45)</sup>

귀국길에 본 풍경을 묘사한 나혜석의 글이다. 여기에서 조선과 일본은 서양 문명국에 대한 동양의 비문명국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차원에 놓인다. 그녀의 표현은 서양인의 동양 여행기에서 동양에 대한 첫인상으로 자주 언급하는 “더럽고” “냄새나고” 등의 표현과 별 차이가 없다. 여기에서 여행자의 시선은 곧 서양 문명인의 시선이다. 그녀에게 서양에 비한다면 일본도 소선과 마찬가지로 지저분한 아민국일 따름이다. 치옴 여행을 떠날 때 일본에 들렀던 박인덕이 일본의 깨끗함을 찬탄했던 것과는 다르다. 그러나 박인덕 또한 독일인의 부지런함을 강조한 글에서<sup>46)</sup> 근면과 게으름의 이분법으로 게으른 한국 민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여행기에 국한할 때, 나혜석과 박인덕의 젠더 의식과 민족 의식의 힘겨루기에서 대부분 전자가 승리한다. 그러나 젠더로서의 자기 발견과 한국 민족으로서의 자기 발견은 결코 지속적으로 배타적인 문제일 수는 없다. 그녀에게서 민족의식과 여성으로서의 자의식은 양립하기 힘든 것으로서

45) 위의 책, pp.318~319.

46) 박인덕, 「내가 본 독일 농촌」, 『삼천리』(삼천리사, 1932.4), pp.66~69.

갈등의 진원지였다. 전통적 삶과 여성의 주체적인 삶, 민족적 삶과 여성으로서의 삶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의식과 자아는 분열되었으며 자기 모순은 심화되었다.<sup>47)</sup> 여행 이후를 포함한 나혜석의 삶에서 이중적 민족 의식이 논의되는 것 또한 이러한 맥락이다.<sup>48)</sup>

나혜석과 박인덕의 여행기에서 민족 의식적 차원의 언급이나 여행 대상국에 대한 비판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과는 달리 허정숙의 글은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여기에서 그녀는 미국에서 자본주의화 되어가는 동포들을 보면서 느끼는 한심스러움과 동정심, 그들과 조선 영토의 민족을 떠올리며 드는 창연한 감정 등 격정적인 모습들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한심스러우면서도 동정의 눈물을 감출 수 없고 그러다가 또 자본주의에 대한 증오에 분노하는 그녀의 격정적인 감정의 교차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민족에 대한 따스한 감정에 토대한 그녀의 사회주의적 신념이다. 한심스러워하면서도 한 민족이요 동포이기에 동정심을 금치 못하는 그녀의 태도에서 이를 읽을 수 있다. 허정숙은 미국 유학 이후 더욱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여성 운동을 펼쳐나가지만, 여행기에서만큼은 여성으로서의 입장보다는 반자본주의적 관점과 민족적 관점에 더 비중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 2) 시선의 동시성, 바라봄과 보여짐

박인덕의 『세계일주기』는 말 그대로 세계를 두루 여행하고 쓴 여행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을 접한 경험이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그녀가 흥인종 및 흑인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백인들 사이에서 그녀는 또 어떻게 보여지는 대상이 되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서양의 변방으로서의 동양, 남성의 변방으로서의 여성이라는

47)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푸른역사, 2004), pp.92~108.

48) 위의 책, p.104.

이중적 변방의 존재인 박인덕이 어떻게 바라봄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보여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앞에서 언급한 「울산행」이 번역되어 실리게 된 데에는 유학생이 자신/우리를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선을 의식한 결과이다. 여기에는 이미 나/우리(조선)와 그들(일본)과의 경계가 전제되어 있다. 외부 시선의 의식은 안과 밖의 경계 형성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계를 무화하려고 할 때에는 그러한 의식은 억압되고 만다. 즉, 동일화의 지향에 의해 경계의 발생이 사전에 차단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를 박인덕이 벨기에의 어느 도시에서 강연할 때를 서술한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녀는 오백명 가량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였다. 강연이 끝난 뒤 “이날 이렇게 군중이 모여 든 것은 강연에 취미가 있어서 모여든 것보다도 동양 여자가 어떻게 생겼나 하고 구경은 것이 좀 더 정확한 이유인 듯 하다.”<sup>49)</sup>고 적고 있다. 강연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동양 여자인 그녀를 구경하기 위해 “어떻게 돌아서서 바라보고 흠어져 가지 않는지 총무가 얼른 데리고 강당문 밖으로 나가서 호텔로” 갔다고 한다. 또 그녀는 나폴리의 전차 안에서도 이러한 동양 여자로서 관심 또는 구경거리가 된 적이 있다. 박인덕이 이러한 광경을 묘사하는 태도는 지극히 중립적이다. 거기에는 어떤 논평도 없다. 그녀는 이에 대해 아주 사실적인 현상의 하나처럼 언급하고 지나갈 뿐이다. 이것은 그녀가 이 시선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녀는 자신이 구경거리가 됨을 불쾌해하지 않는다. 이처럼 그녀가 그들의 시선에 무감각할 수 있는 것은 서양인에 대한 비판적 거리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즉, 그들과의 동일화를 지향하는 그녀의 무의식이 그녀로 하여금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문제 삼지 않게 한 것이다.

이러한 거리의 부재 또는 서양인에 대한 동일화를 추구하는 태도는 흥인종(인디언), 흑인 및 동양인을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에도 그대로 반영

49) 박인덕, 앞의 책, pp.102~103.



된다. 즉, 그녀는 서구인의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본다. 구미인들은 인디언 또는 원주민들의 문화를 구경거리로 만듦으로서 그들의 문화를 박제화했다. 이것은 박인덕이 인디언이나 원주민들을 접하는 곳이 동물원 또는 관광지라는 데에서 알 수 있다. 그녀는 그랜드 캐년을 여행하면서 그 곳에서 하나의 구경거리가 된 인디언들의 문화들을 접하게 된다. 그들의 집, 생활 모습들을 보면서 그녀는 “모방성이 적어서 그런지 혹은 완고성이 많고 고집스러워 그런지 그들이 구미 사람들과 접촉된 지 벌써 삼세기반이나 되나 그들의 생활은 일호도 변치 않고 원시적 생활을 그대로 계속한다.”<sup>50)</sup>라고 서술하고 있다. 미국인들의 인디언에 대한 정치성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그에 대한 의식조차 없다.

또 인도인 안두루쓰에 대한 일화에서는 동양인을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을 발견할 수 있다. 몹시 추운 날 그들은 일행이 되어, 말이 끄는 썰매를 타고 몬트리올에서 일렉셀프섬으로 가게 되었다. 일행들을 남겨 두고 안두루쓰가 우편소에 잠시 들리게 되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 일행 중 하나를 보냈는데 그는 그 곳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다. “우리 인도에서는 시간이 무한량이라”고 한 그의 변명을 적은 뒤 박인덕은 비아냥거리는 어조로 “그동안 우리들은 탕탕 얼었다”라고 덧붙였다.<sup>51)</sup> 여기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인도인 또는 비경제적인 시간관을 가진 인도인에 대한 비판이 포함되어 있다. 박인덕은 서양인과 동일한 위치에서 흥인종과 인도인을 바라본다.

그러나 동양인으로서의 그녀의 시선은 이렇게 단순 명쾌할 수만은 없다. 비서양인이라는 그녀의 위치는 그녀의 시선을 분열시킨다. 동물원에 갔다가 구경거리가 된 흑인들을 보면서 하는 그녀의 생각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녀는 흑인들을 동물원의 동물 묘사하듯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그들을 한참 구경하다가 “그들의 풍속이 하도 이상하여 우리의 풍속

50) 위의 책, p.51.

51) 위의 책, p.235.

중에 외국인에게 저렇게 이상스럽게 봐일 것이나 없나 하고 반성이 된다.”<sup>52)</sup>라고 하면서 나/우리도 저들처럼 외국인에게 비치지 않을까 하고 되짚어본다.

여기에서 그녀의 의식이 분열되면서 발생하는 두 개의 중첩된 시선이 발견된다. 지금까지 그녀는 서양 백인의 시선으로 흑인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돌연 자신을 흑인의 위치에 두면서, 자신을 타자로 만들어버릴 백인의 시선을 의식한다. 여기에는 서양인과 동일한 위치에서 흑인을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과 자신이 흑인의 위치에서 바라보여질 것을 의식하는 내면의 또 다른 시선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 동양인으로서의 자기 인식이 그녀의 무의식에 강하게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박인덕의 자기모순이 있다. 그녀의 시선이 아무리 서양적이라 할지라도 그녀의 몸이 동양인인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녀는 바라봄의 대상이 될까 두려워하면서 흑인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서양을 여행하는 동양 여성을 둘러싼 시선은 중첩적이다. 즉, 그들은 바라봄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바라봄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복잡성은 식민지 여성이 갖는 그녀의 중층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 5. 맺음말

지금까지 근대 여성의 여행기를 중심으로 여성 여행의 성격과 여성의 자기 구성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신여성의 구미체험을 담은 나혜석과 박인덕 그리고 허정숙의 여행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여성들의 여행과 여행기에 대한 분석과 논의는 아직 정치하게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신여성들의 국내 여행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52) 위의 책, pp.128~130.

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근대 수필 가운데 기행수필 즉 기행문 또는 여행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으나 이 가운데에서 여성의 여행기는 양적으로 많다고 할 수 없다.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절대적인 외출의 제한성에 있다. 여성들의 외출에 대한 부자유스러운 조건이 여행기의 창작에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것은 이 시대 여성들의 여행기의 내용과 형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 결과 여행기가 주로 기억에 의존하는 형식을 취한다거나 여행지 및 여행에서 본 대상에 대한 낭만적 이상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남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신여성 세 사람의 서양 여행기를 통해 그들이 서양을 여행하고 체험하면서 어떻게 자기정체성을 구성해나가는가를 살펴보았다. 나혜석과 박인덕의 경우는 유사한 면이 많았다. 여행 이전에 이미 서양에 대한 동경을 강하게 품고 있던 그들에게 서양 여행은 추상적 동경을 더욱 구체적이고도 현실적 이상으로 꿈꾸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들의 서양에의 경도는 그 곳의 삶이 여성의 인간적 삶을 보장해준다는 확신에 의한 것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젠더 의식과 민족의식 사이에서 분열하면서 자기 모순적인 면모를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 이와 달리 허정숙은 젠더와 민족이라는 두 가지 의식을 균형 있게 유지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비롯된 서양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이를 가능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 박인덕의 『세계일주기』는 다양한 인종에 대한 관점과 황인종 동양 여성에 대한 서양인들의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서양에 대한 동양, 남성에 대한 여성으로서의 이중적인 변방의 존재로서 그녀의 시선은 중첩되고 분열되었다. 이러한 분열되고 자기모순적인 여행자들의 태도는 그녀가 비서양인이라는 층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들의 서양 여행기는 서양과 동양, 남성과 여성이라는 근대의 강요된 위계적 사유가 구성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문제적인 텍스트이다. 본고의 논의는 이를 위한 출발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들의 여행기 자료 또한 더욱 보태어져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개벽』, 『그리스도인회보』, 『대한유학생회학보』, 『대한일보』, 『삼천리』, 『소년』  
『신가정』, 『신여성』, 『신인문학』, 『여성』, 『우라키』, 『조광』, 『청춘』, 『학지광』  
박인덕, 『세계일주기』, 조선출판사, 1941.  
이상경 편집 교열,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허정숙, 「울 줄 아는 人形의 女子國—北米印像記—」, 『별건곤』, 1927.12.

### 2. 단행본 및 논문

-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김현화, 「한국 근대 여성 화가들의 서구 미술의 수용과 재해석에 관한 연구」, 『아  
세아여성연구』 제38호, 숙명여대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1999.  
박정애, 「초기 '신여성'의 사회진출과 여성교육—1910~1920년대 초반 여자 일본유  
학생을 중심으로」, 『여성과 사회』 제11호, 2000.  
박지향, 「여행기에 나타난 식민주의 담론의 남성성과 여성성」, 『영국연구』 제4호,  
영국사학회, 2000.  
서형실, 「허정숙, 근우회에서 독립동맹투쟁으로」, 『역사비평』 제6권, 역사비평사,  
1992.  
이혜순, 「여행자 문학론 試攷」, 『비교문학』 제24호, 한국비교문학회, 1999.  
최숙경, 「개화기 여성 생활 문화의 변동과 전개」, 『여성학논집』 제16권,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1999.

Abstract

**The travels of the New Women and their method to form  
self-identity through the experiences in the West**

— Focused on travel pieces in the West of Na Hye-Seok, Park In-Deok and Heo Jeong-Sook

Woo, Mi-Young

The modern age is the period underscoring the geography as well as the traveling more than any other period. Korea is not an exception. But the concept of travel stressed in the modern spirits is different from that of women's travel. This shows an aspect of modernity that started from cacophony with females. However in this relation of feud, the women exploited own modern way in the middle of the masculine modernity. This paper aims to think of this through the travel pieces of the New Women of modern Korea.

Any discussion about travel pieces of modern women has not become serious so far. Thus it simply summed up with Korean accounts for journey the conditions for traveling of the New Wome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ravel pieces. It focuses on those of Na Hye-Seok, Park In-Deok and Heo Jeong-Sook. It is mainly of how they had formed self-identity in their travels and experiences in the West. What the New Women of modern Korea face in their journeys are, at first, that they are not western people, that they are from a colony and that they are women. These existence conditions of them serve as an important layer to identify the nature of the trips in the West. This led them to have a duplicated consciousness to be the subject as well as the object for the trips. This also led them to be dissociated and self-contradictory existence in terms with their nation, gender and race. It

accounts for that this dissociation of consciousness and self-contradiction were resulted from Korean New Women's position in the discourse of modernity. Likewise their travel pieces in the West come into question for grasping the procedure to form hierarchical thoughts imposed by modernity such as the West and the East and the men and the women. The study on such constructive procedure of consciousness and its trend in the western experiences of these three New Women will be another chance to see how the modern intellectuals accepted what the West is.

**key words** : new women's travels in the west, principles of identification, gender and nation, borderland of borderland (doubled edges), races and gaze

■ 위 논문은 9월 30일 투고되어, 10월 20일 심사 완료 후, 11월 3일 게재가 확정되었음.